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Different Age Group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해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인 삶의 만족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령에 따라 40~50대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19~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인(65세 이상)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평가는 특히 종합적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와 요구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Assessments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is particularly needed to assess comprehensive policy success and to distinguish needs from want)."

- Veenhoven, R. (2002, p. 44).

1. 들어가며

행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사회정책의 중장기 목표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이 균형 잡힌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10위로 높일 것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삶의 만족도[1]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그런데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1위, 1인당 GDP 규모로 29위의 경제력을 보이는 한국에서 국민 행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 pp. 24-26)에 따르면, 156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민 행복 수준은 5895점으로 5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에서 30위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불가사리형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영역별로 비교적 원만한 동그라미형인 핀란드의 복지 수준 및 삶의 질과 비교하면(김상호, 정해식, 임성은, 김성아, 2016; 정해식 외, 2018),[2]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이 마냥 문화적 차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낮은 삶의 질과 행복도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현상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김성아, 우선희, 2018; Wang, 2018). 이후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40~50대까지 점차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U자형이 나타난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보이는 노인의 낮은 행복 수준은 이상 현상(anomaly)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대별 삶의 만족 수준을 확인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발견하여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객관적 조건에 비해 행복 수준이 낮은 한국인의 취약한 삶의 영역에 대한 사회정책 개입 전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대별 삶의 만족 수준 추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행복의 U자형

주요 선진국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40~50세 사이에서 최저점을 보인 후 60세 이상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75세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전반적인 U자형이 나타난다(Frijters & Beatton, 2012).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20~39세의 초기 성인은 유의미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40~64세 성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은

1) 삶의 만족도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비교적 강건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OECD, 2013; Wang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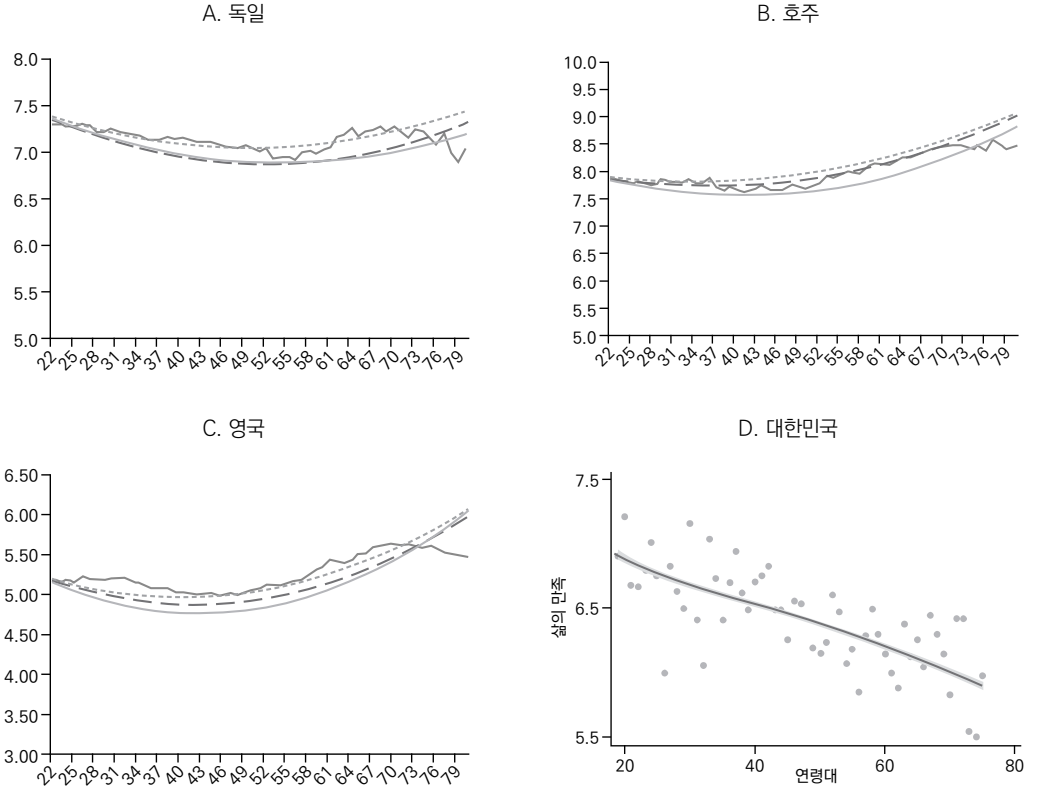
2) 김상호 외(2016)는 경제 활력도, 재정 지속도, 복지 수요도, 복지 충족도, 국민 행복도의 5개 영역에 대한 OECD 국가의 복지 수준을, 정해식 외(2018)는 OECD에서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의 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의 11개 영역에 대한 OECD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생애를 돌아보며 보람을 느끼는 자아통합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장년기의 부양 부담을 생각하면 삶의 만족 수준이 생애주기에 따라 U자형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은 독일(A)과 호주(B), 영국(C)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U자형의 삶의 만족도를 도식화해서 보여 주고 있다. 각각 다년간의 '독일 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그림 1. 주요국과 한국의 연령별 삶의 만족 수준

(단위: 점)



주: 1) (독일, 호주, 영국) 굵은 실선은 평균 삶의 만족, 얇은 실선은 소득, 성별, 교육 수준, 가구 내 아동의 숫자, 결혼 상태, 고용 상태를 통제한 평균 삶의 만족, 굵은 점선은 건강 수준과 재산 수준을 추가 통제한 평균 삶의 만족, 그리고 얇은 점선은 이혼, 가구원의 사망, 승진, 해고, 결혼, 임신 등 중요한 생활 사건을 추가 통제한 평균 삶의 만족임.

2) (대한민국)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로 구분한 11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연령별 평균 삶의 만족 수준이고, 실선은 연령 구간에 의한 다차선(fractional polynomial plot), 회색 구간은 신뢰 구간임.

자료: (독일, 호주, 영국) Frijters, P., & Beat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p. 533; (대한민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호주 가구, 소득, 노동력 역학조사(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그리고 '영국 가계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활용해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만족 수준 연령별 추정값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장년기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그림 D는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한국인의 연령별 삶의 만족 수준을 보여 준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이 주요 선진국의 그림에서 확인한 U자형과 달리 중장년기의 최저점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인빈곤율이 45% 내외에 이르는 한국에서(기초보장연구실, 2017, p. 101)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다. 노년기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령대별 영향요인 비교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3)]

3.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이 연령 증가에 따라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19~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그리고 노인(65세 이상)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주목하는 개인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삶의 만족 수준 평균은 6.3점이다. 연령대에 따라 청년에서 노인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 수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 인구학적 특성으로 활용하는 연령은 평균 45.1세이고, 앞서 확인한 해외 사례와 같이 U자형 영향의 통계적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에서는 연령의 제곱값[4)]을 함께 활용한다. 여성은 전체 표본의 49.2%이다.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나누어 준 균등화 가구 총소득은 월평균 226만 7000원인데, 청년에서 노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 총소득이 낮다. 교육 수준에서 중졸 이하인 청년의 비율은 0.6%에 불과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비율이 늘어나고, 청년과 중년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각각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청년과 중년의 정규직 비율이 각각 34.1%, 42.2%로 가장 높고, 장년은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4.2%로 가장 높다. 노인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60.7%로 가장 높다.

3)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확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 평균이 5.98점(10점)인 데 비해,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빈곤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5.19점, 비빈곤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6.53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4) 단, 의미 있는 회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는 연령의 제곱값을 100으로 나누어 투입한다.

표 1. 기초통계량

연령대	표본 (명)	삶의 만족 (점)	연령 (세)	여성 (%)	균등화 가구 총소득 (만 원/월)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청년 (19~34세)	1,007	6.61	26.7	46.8	250.6	0.6	47.2	52.3
중년 (35~49세)	1,219	6.40	42.3	49.0	241.2	1.9	40.7	57.5
장년 (50~64세)	1,050	6.11	56.3	51.9	225.1	24.7	51.9	23.5
노인 (65세 이상)	563	5.98	69.5	49.3	134.2	65.0	24.9	10.1
전체	3,839	6.33	45.1	49.2	226.7	15.4	43.9	40.7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				사회적 지지 항목(%)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근로자	미취업자	모두 있음	1개만 없음	2개만 없음	모두 없음
청년 (19~34세)	34.1	13.4	5.6	47.0	72.9	18.1	6.4	2.6
중년 (35~49세)	42.2	11.3	23.0	23.5	70.4	17.0	6.5	6.2
장년 (50~64세)	20.0	17.9	34.2	27.9	64.8	19.1	9.9	6.2
노인 (65세 이상)	3.1	12.4	23.9	60.7	48.8	25.4	11.1	14.7
전체	29.0	13.9	21.4	35.8	67.0	18.9	8.0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이 글에서는 개인의 삶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의 곤란, 경제적 곤란, 정서적 곤란[5]에 대하여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세 가지 곤란의 항목 모두에 대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있음'으로, 1개만 없는 경우와 2개만 없는 경우, 그리고 모두 없는 경우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분했다. 전체 표본에서 해당 사례는 각각 67.0%, 18.9%, 8.0%,

5)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가상의 상황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의 세 가지 항목이다. 가족 외에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및 전담 공무원, 기타의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을 선택한 경우, 사회적 지지가 부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6.2%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세 가지 곤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청년에서 노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집단은 이 비율이 48.8%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또한 노인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항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의 비율은 14.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는 〈표 1〉에서 살펴본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p<0.05$) 특성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했다. 계수의 방향에 따라 양수일 경우 긍정적인, 음수일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

우선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1열)를 보면, 연령의 계수가 음수이고 연령 제곱의 계수가 양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그림 1]의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그림 1]의 그림 D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U자형의 삶의 만족 수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6] 그리고 여성의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다.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의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을 유의하게 높인다. 그리고 생활, 경제적, 정서적인 곤란을 겪을 때 가족 외에 의지할 상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는 직관적인 기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영향요인 분석 결과(2~5열)는 전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1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연령대별 삶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이한 경향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년과 중년, 장년 집단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 노인 집단에서는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통계적 경향이 뚜렷하다.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상태가 청년 집단에서 삶의 만족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자 상태는 장년 집단에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전 연령대를 걸쳐 일관되게 삶의 만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청년과 장년의 삶의 만족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특히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 부재가 심화될

6) 연령과 연령 제곱만을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각각의 연령 설명변수는 삶의 만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아도 연령에 따라 U자형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자연 상태의 한국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만족 수준이 U자형이 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표 2.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구분	(1) 전체	(2) 청년(19~34세)	(3) 중년(35~49세)	(4) 장년(50~64세)	(5) 노인(65세 이상)
만 나이	−0.071*** (0.013)	−0.024 (0.016)	−0.008 (0.012)	0.020 (0.015)	0.016 (0.025)
만 나이 제곱(/100)	0.075*** (0.015)				
여성 더미	0.283*** (0.064)	0.266* (0.124)	0.263* (0.123)	0.343** (0.128)	0.227 (0.152)
교육 수준(중졸 이하=0)					
고졸	0.205* (0.103)	−0.565 (0.449)	0.459 (0.444)	0.091 (0.152)	0.371* (0.178)
대졸 이상	0.365** (0.119)	−0.480 (0.452)	0.839+ (0.450)	−0.057 (0.200)	0.611* (0.305)
경제활동 상태(정규직=0)					
비정규직	−0.351*** (0.103)	−0.434* (0.214)	−0.323+ (0.189)	−0.276 (0.190)	−0.313 (0.502)
비임금근로자	−0.030 (0.087)	−0.501+ (0.288)	−0.093 (0.135)	−0.017 (0.161)	0.422 (0.485)
미취업자	−0.226** (0.085)	−0.141 (0.148)	−0.063 (0.154)	−0.531** (0.192)	−0.046 (0.478)
로그 균등화 가구 총소득	0.654*** (0.069)	0.527** (0.165)	0.528*** (0.132)	0.829*** (0.129)	0.811*** (0.143)
사회적 지지(모두 있음=0)					
1개만 없음	−0.273*** (0.078)	−0.289+ (0.156)	−0.281+ (0.155)	−0.198 (0.142)	−0.448** (0.173)
2개만 없음	−0.633*** (0.120)	−0.763** (0.261)	−0.371 (0.226)	−0.835*** (0.218)	−0.618* (0.251)
모두 없음	−0.839*** (0.143)	−0.739 (0.450)	−0.422 (0.266)	−1.039*** (0.252)	−1.157*** (0.243)
상수	4.409*** (0.441)	5.184*** (1.088)	3.432*** (0.968)	0.891 (1.140)	1.213 (2.122)
표본 크기	3,835	1,006	1,218	1,049	562
조정 R^2	0.093	0.041	0.056	0.117	0.162

주: 표본의 이분산성에 대하여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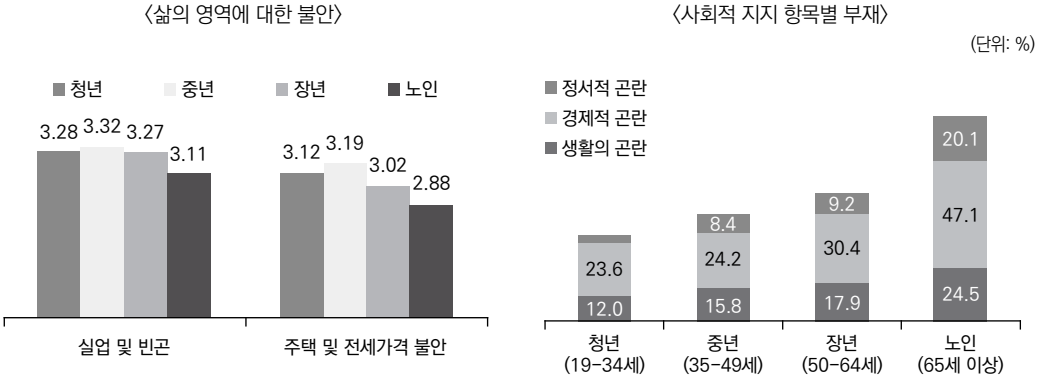
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4. 나가며

앞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연령에 따라 중장년기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이 나타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연령대별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전 연령대의 삶의 만족 수준에 일관되게 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은 소득이고, 이러한 특성은 직관과 부합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으며 개인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과 정책 노력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 상태 또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 집단에서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가 삶의 만족을 저해하고 있다. 장년에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상태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의 연령대별 삶의 영역에 대한 불안 인식 정도를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은 중년층 다음으로 실업과 주택 등 경제적 특성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유추해 보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년기까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 이후 은퇴와 노년기를 앞둔 장년층에게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

그림 2. 연령대별 삶의 영역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주: (불안) '매우 불안하다(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5점)'의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불안 수준을 의미함.
(사회적 지지 항목별 부재) 각각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청년과 장년, 노인 집단의 삶의 만족을 저해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지지가 36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정해식 외, 2018, pp. 28-29), 생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 형성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증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림 2]에서 연령대별로 개별 곤란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을 세분화한 분포를 보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청년 23.6%부터 노인 47.1%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절대적인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진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이 곤란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경우 정서적 곤란에 대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1%로 장년의 9.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곤란의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국민들의 만족스러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연령대를 고려한 생활 전반적인 영역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초보장연구실 (편). (2017). 2017년 빈곤통계 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김성아, 우선희.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정해식, 임성은, 김성아. (2016).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9. 2. 1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정영호, 안주엽, 오선정, 채창균, 윤혜준, 김지선,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Frijters, P., & Beat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doi: 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MG. (2019. 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doi: doi: 10.1257/089533006776526030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33-45. doi: 10.1023/A:1015723614574

Wang, S., Helliwell, J. F., Lee, G. E., Zhou, W., P, C., Barrington-Leigh, & Choi, S. (2014).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 Wang 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ang, S. (2018). Korean's 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6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Presentation Material*. OECD, Statistics Korea.